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7, No. 105, pp. 287-315
https://doi.org/10.29212/mh.2017..105.28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전쟁기 상해지역 ‘항미원조(抗美援朝)’ 운동의 실상과 특수성*

- ‘항미’(抗美)와 ‘원조’(援朝) 사이에서 -

김태윤**

1. 머리말
2.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과 항미원조운동의 시작
3. 시사선전(時事宣傳)운동을 통한 ‘공미증(恐美症)·친미증(親美症)’ 극복
4. 대중동원운동을 통해 얻은 중국의 경제적 안정
5. 맺음말

1. 머 리 말

현재 한국사학계에서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연구는 개별주제 내에서도 여러 다른 이론이 존재할 만큼 그 스펙트럼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 한국전쟁(The Korean War), 중국의 입장에

* 본고는 동북아역사재단의 2016년도 연구 용역 과제 지원으로 작성하였다. 과제번호 “동북아 2016-한중-기획-7-1”.

**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박사과정

서 본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 북한과 남한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까지 그 수도 상당하다. 하지만, 중국에서 진행된 ‘항미원조운동’(抗美援朝運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하다.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과 후방 지원 등의 부분에서 항미원조운동¹⁾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학계에서는 크게 주목 받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항미원조운동은 ‘미국의 침략에 대항하고 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돕는다’는 기치아래 중국 내에서 진행된 대중운동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북한 전시지원운동이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중국 내부의 정치·경제 안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축적된 한국 측의 연구도 이러한 경향 속에서 진행되어오고 있다. 한국학계는 항미원조운동의 성격을 큰 틀에서 주로 중국 내부에 미친 영향이나 중국 내부의 상황에 집중하여 연구하고 있다. 연구가 많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분석 틀이나, 소재, 시기구분, 인과 관계적인 부분에서 각 연구들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²⁾

중국은 항미원조운동의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 지역인 ‘상해’로 한정지어 살펴보면, 우선 상해시 시사선전운동을 분석한毕晓敏의 연구³⁾가 있고, 대중동원에 초점을 맞춘 张励

1) 중국은 1950년 항미원조(抗美援朝) 보가위국(保家衛國)–“미국에 항거해 북한을 돕고, 국가를 위하고 집을 보호하자는 뜻”을 내세워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중국은 참전당시 조선을 돕자는 취지로 항미원조운동을 진행하였다.

2) 김옥준, “중국 ‘항미원조운동’의 대내적 성격과 의의”, 『중국학논총』 23(2007), 한국중국문화학회; 손해룡, “1950년대 ‘항미원조운동’ 중 나타난 한반도 인식”, 『중국현대문학』 59(2011),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이세은, “한국전쟁 시기 中共의 지식인·학생의 대중동원 : ‘抗美援朝運動’과 북경대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2011), 傅焜, “抗美援朝運動期 중국공산당의 한국 이미지 만들기 : 인민일보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2012), 정다운, “한국전쟁 시기 중국 동북지역의 항미원조운동과 내셔널리즘-길림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역사전공 석사학위논문(2015)

3) 毕晓敏, “上海抗美援朝运动时期的时事宣传”, 『海青年管理干部部完学推』(2013)

의 연구⁴⁾가 있다. 이들 논문은 한국전쟁기 중국의 정치경제적 분위기를 항미원조운동의 틀에서 살펴보았다. 彭媛의 연구는 항미원조시기 은행을 분석하여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살핀 연구인데, 항미원조운동의 캠페인적 성격 외에 경제적 측면에 집중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⁵⁾ 하지만 이 연구들은 항미원조운동의 개별적 성격만을 분석하였다. 특히 대중운동과 선전운동을 각각 독립적인 운동으로 분석하였고, '상해'에서 왜 대규모의 항미원조운동이 발현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앞선 연구들을 염두에 두고 북·중관계의 맥락 속에서 항미원조운동이 가졌던 목적과 실상을 살펴보고자한다. '항미'와 '원조'라는 단어의 내적의미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며 두 단어 중 더 무게가 실렸던 쪽을 분석하여 항미원조운동의 실상을 확인해 볼 것이다. 분석 지역은 상해에 한정하였다. 지역을 상해로 설정한 이유는 오랜 시간 프랑스 등 서구의 조계지였기 때문이다. 상해에는 서구 자본주의·자유주의적 사상이 다른 중국의 도시보다 더 깊게 침투해 있었다. 상해는 1930년대부터 이미 서구 문물이 많이 들어와 있던 곳이었으며 많은 미국영화들이 상영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친미적인 성향이 많이 드리워져 있는 지역이었다. 때문에 상해지역은 다른 중국 국내의 지역보다 '친미'를 빼내려는 모습, 즉 '항미'적인 면이 더 극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라고 상정하였다. 실제로 상해지역은 북한의 『로동신문』에 여러 차례 소개되기도 했을 정도로 항미원조운동이 강하게 일어난 지역이기도 했다.⁶⁾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항미원조운동의 전개과정을 애국주의 운동,

4) 张励, “抗美援朝运动中上海的群众动员”, 『历史回溯』(2006)

5) 彭媛, “简析抗美援朝战争对上海外商银行的影响”, 『重庆科技学院学报(社会科学版)』(2012)

6) “상해의 항미원조운동 고조”, 『로동신문』(1951년 3월 31일), “항미 원조운동을 일층 강화하라! (상해 각신문의 론평)”, 『로동신문』(1951년 4년 3일), “위대한 새중국 (5), 5억만 인민이 우리와 같이 싸우고 있다(상해)”, 『로동신문』(1951년 12월 27일)

무기헌납운동, 애국증산 절약운동의 세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⁷⁾ 하지만 본고에서는 첫 번째 단계를 시사선전운동 단계, 두세번째 단계를 묶어서 대중동원운동의 단계로 구분하여 보고자 한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우선 무기 헌납운동과 애국증산 절약운동 모두 대중 동원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얻고자 했던 성격이 같다는 공통점이 있고, 시사선전운동은 대중동원운동을 시작하기 전, 항미원조운동 같은 대규모동원운동이 가능하도록 대중들을 고무한 사상적 교육단계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아직까지 한국학계에서 많이 활용되지 않은 상해당안관(上海檔案館)의 자료를 중점적으로 사용하였다.⁸⁾ 우선 시사선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시 시사선전의 전반적인 보고사항을 다룬 문건인 『中共上海市各區委群衆團體宣傳部關於当前時事宣傳教育工作報告』를 참고 하였고, 대중동원에 관해서는 방직노동조합의 보고 문건인 『中共上海市委政策研究室關於各區委抗美援朝愛國捐獻調查材料』과 『中國紡織工會上海市委員會關於抗美援朝運動的初步總結』를 주로 참조하였다. 언급한 사료은 모두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있는 자료이다. 이 외에 상해지역의 각종 항미원조운동공회⁹⁾들이 올렸던 “항미원조운동보고문건”을 정리해 편찬한 자료집 『上海工人抗美援朝运动专辑(上海工运资料)』¹⁰⁾을 주로 참고하여 상해지역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앙이 각 구에게 내린 지시서와 같은 경우 중앙당안관(中央檔案館)의 사료도 함께 참고하였다.

7) 첫 번째는 1950년 10월부터 1951년 5월까지로 주로 반 사회주의적 요소를 제거하는 애국주의 운동, 두 번째 단계는 1951년 6월부터 1951년 말로서 참전한 중국지원군의 전투기와 중무기 구입을 위한 무기헌납운동, 마지막 단계인 51년 말부터 정전 시까지는 애국증산 절약운동과 참전군인들의 가족들의 생계를 돕기 위한 지원운동임.

8) 이 글에서 사용한 상해당안관의 자료들은 모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9) 한국전쟁당시 상해지역에 항미원조 00공회가 다수 조직되었다. 그 종류는 의료, 방직, 시정, 화학, 전신, 식품, 건축공회 등이다.

10) 『上海工人抗美援朝运动专辑(上海工运资料)』, 上海總工會調查研究室編(1951)

부족한 사실관계나 당시 여론을 보충해주는 신문자료로는 『人民日報』와 『文匯報』를 참조하였다. 『人民日報』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일반적으로 발간되는 신문과는 다르게 중국공산당의 정책이나 사상을 대변하는 신문으로 당시 중국공산당의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文匯報』는 1950년 상해지역에서 발간되던 민간신문으로, 현재는 홍콩에서 발행되고 있다. 일단 지역신문인 점에서 기관지보다는 상해의 이해관계를 더 대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당시 상해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人民日報』과 비교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항미원조운동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의 공식 간행물인 『로동신문』과 김일성의 주요 연설과 논문을 수록한 『김일성 저작집』과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북한관계사료집』¹¹⁾을 활용하였다.

2.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과 항미원조운동의 시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은 참전을 결정하지 않은 채 김일성과 스탈린이 참전을 요청할 때까지 참전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 있어 기존의 연구는 중국이 미국의 참전 전까지는 전쟁에 참여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전쟁 개전 후인 1950년 7월 7일 중국은 '동북변방군'을 창설하여 만약을 위한 사전방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대원들을 선발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¹²⁾

11) 『北韓關係史料集』은 미국국립문서보관소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 소장되어 있는 노획문서를 정리하여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것으로, 북한 연구의 기본이 되는 자료이다. 본 논문에서 이용한 『北韓關係史料集』은 이하 『史料集』으로 약칭하고 간행기관(국사편찬위원회) 및 간행년도(1982~현재)는 생략한다.

12) 선즈화,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서울: 선인, 2010, 271쪽, 박영실, 『중국인 민지원군과 북·중 관계』, 서울: 선인, 2012, 86쪽.

한편으로는 중국 내에서 대중들에게 항미원조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은 4년여에 걸친 국공내전을 막 끝낸 후 1949년 10월 1일 신생 사회주의 중국을 수립한 상황이었다. 당시 대중들의 ‘전쟁’에 대한 여론은 악화된 상태였으며 경제,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전쟁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중국의 상황이 얼마나 불안했었는지를 설명하자면, 우선 경제적으로는 공장 대다수가 가동을 멈췄으며 철도 또한 오랜 전쟁으로 1/2 가량이 훼손되었다. 자연재해로 인해 농산물 또한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여 상해는 인민정부가 상해시민들이 먹을 쌀을 15일치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인플레이션도 심각해져 중국의 화폐가치는 절하되었고 물가도 폭등하여 시장은 경제 또한 혼란스러웠다. 이때를 틈타 자본가들은 불법적인 매점매석으로 시장에 혼란을 가중하였다. 자본주의의 시장경제가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 활발했던 상해의 경우 정부수립한 달 후 물가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볼 때 1950년 2월에는 2,097.90으로 폭등하여 약 20배가량이 뛰었다. 극도로 혼란한 물가는 정상적인 상품유통과 농공업 생산 질서를 무너뜨렸고, 중국의 경제에 극단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¹³⁾ 이외에도 공업생산 수준도 악화되어 기계공업은 운용될 수 없었고, 토지개혁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1949년 말 마오쩌둥(毛澤東)은 12월 16일 스탈린을 비롯한 소련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현재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평화를 보위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전쟁 전 수준의 경제 회복과 전국의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3년 내지 5년간의 평화로운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중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평화정착이다.”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13)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오규열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3쪽.

하였다.¹⁴⁾

이처럼 마오쩌둥이 중국의 평화를 강조한 이유는 사회주의 중국 수립 후에도 완전히 중국전역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광둥(廣東), 광서(廣西), 사천(四川), 귀주(貴州), 운남(雲南), 서강(西康), 서장(西藏) 등의 지역은 아직도 국민당이 관할하고 있었다. 신해방구(新解放區)의 기층정부도 공고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정치적으로 불안요소들이 산재해있던 상황이었다.¹⁵⁾ 이 때문에 중국은 '사방으로 출격하지 않겠다(不要四面出擊)'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국 내의 정치적 안정과 국민경제회복에 집중하고 있었다.¹⁶⁾

한국전쟁 개전시기만 하더라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적은 국민당이었고, 체제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목표였다. 중국으로서는 인접국인 북한과 남한의 전쟁보다는 국내의 국공내전과 경제·정치재건에 더 치중해야 했다. 미군의 참전문제에 대해서는 '애치슨 선언'¹⁷⁾으로 참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또한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은 정치수뇌부 측에서 동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중들이 동의할 것인지의 여부가 미지수였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한국전쟁의 참전 결정이 진행되던 중 1950년 6월 말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겠다는 결정을 하였고, 타이완에 주둔해 있던 미군의 '7함대'가 타이완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미 7함대 대만해협 파견은 중국 국내에 경제적, 사상적 혼란을 야기하였다. 1950년 6월 28일 북경, 상해, 천진 등의 대도시에서 은행의 현금인출이 줄을 이었고 생필품의 사재기가 시작되었다. 이미 마오쩌

14) 『毛澤東與斯大林會談記錄(모택동과 스탈린의 회담 기록)』, 1949년 12월 16일.

15)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오규열 역, 위의 책 1, 3쪽-4쪽.

16)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오규열 역, 위의 책 1, 8쪽.

17) 1950년 1월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1949~1953)이 발표한 선언으로, 애치슨 선언에서 미국의 극동 방위선(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마오쩌둥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 태평양에서의 미국 방위선을 알류산열도 - 일본 - 오키나와 -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을 애치슨 라인으로 정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한국과 타이완, 인도차이나 반도는 애치슨 라인에서 제외되었다.

등은 1950년 5월 미군이 38선을 넘을 경우 중국인민지원군을 조선인 민군으로 위장하는 형식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었다. 유엔군 측 자본주의 진영의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참전이 확실히 되면서 이러한 지원약속은 구체화되고 적극적으로 변화하였다. 게다가 조선인민군이 미군과의 전투에서 중국의 예상을 뒤엎고 연승을 거두면서 승기를 잡아가자 미군의 승리를 확실하게 저지하기 위한 참전을 하게 되었다.¹⁸⁾

이처럼 당시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타이완문제로 인한 압박이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정권초기 급진적인 토지개혁과 반혁명운동의 진압 등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다. 때문에 전략적인 외교 정책·대외전쟁 수행과 함께 국내적으로는 대중운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정권에 대한 지지도를 높여야 했다. 그리고 당시 극심했던 인플레이션의 극복과 생산 증가를 위하여 전시경제체제를 부활시켜 물자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했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성금모금으로 인한 경제부활을 모색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국외적 정책인 ‘참전’과 국내적 정책인 ‘대중운동’이었다.

당시 국가 주석이었던 마오쩌둥은 해방 후 계속되는 국민당정부와의 이념전쟁에서도 ‘대중운동’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갔다. 마오쩌둥은 대중들에게 “인민대중의 혁명적 적극성만으로도 개발할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연설하며 혁명적 이상주의와 평등주의의 대중운동을 기치로 내걸고, 대중들의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을 강조하였다. 대중운동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연안정풍운동(延安整風運動, 1942년), 정병간정운동(精兵簡政運動, 1943년), 합작사운동(合作社運動, 1942년) 등이 있고, 이러한 경험은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을 승리로 이끄는 배경이 되었다.¹⁹⁾ 이러한

18) 김동길·박다정,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후 및 한국전쟁 초기, 중국의 한국전쟁과 참전에 대한 태도 변화와 배경”, 『역사학보』 225, 2015, 242쪽-247쪽.

19) 김옥준, 앞 논문, 203쪽.

대중운동의 효과를 잘 알고 있던 마오쩌둥은 직면한 국내외적 불안감을 항미원조운동이라는 대중운동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에 중국공산당 중앙은 1950년 10월 26일 전국에 항미원조 시사선전진행에 관련한 내용을 지시한 후 항미원조총회의 지도하에 1950년 11월 전국적으로 운동을 전개했다. 1951년 1월 “북한 난민을 구제해야 한다. 특히 식량, 솜옷, 의복이나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중국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²⁰⁾ 상해지역에서 항미원조운동의 문세가 많이 발견되는 이유 또한 이곳에 의복이나 옷감을 생산하는 방직공장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중동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항미원조운동을 홍보하고 애국심을 자극하는 ‘선전공작’²¹⁾을 시작하였다. 우선 대중들이 왜 미국을 원수로 삼아야 하는지, 왜 중국인민이 뭉쳐서 미국을 조선에서 물리쳐야 하는지를 대중에게 인식시켜야 하는 것이 선결 과제였다. 상해시 정부는 적극적으로 시사선전활동을 벌였고, 이것이 항미원조운동에서 애국증산운동(愛國增產運動)으로, 3반·5반 운동(三反·五反運動)²²⁾으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한국전쟁 당시 항미원조운동은 시사선전운동과 생산운동이 세트를 이루며 진행되어갔다. 이하에서는 시사선전운동과 생산운동인 대중동원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0)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오규열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412쪽.

21) 특정한 사상적 노선(路線)이나 파당적(派黨的) 의도에 따라서 대중의 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주려는 정보나 이론. 선전의 목적을 위하여 모든 커뮤니케이션(communiation)이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다. 정치선전·상업선전·종교선전·사상선전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22) 항미원조운동과 이후 진행된 삼반오반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三木 毅, “新中国における三反、五反運動と運動下の財経工作”, 『室蘭工業大学研究報告』(1955):173-183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3. 시사선전(時事宣傳)운동을 통한 ‘공미증(恐美症) · 친미증(親美症)’ 극복

항미원조운동이 한국전쟁 과정에서 북한으로 많은 지원을 한 점은 사실이지만, 중국내부의 시각으로 살펴보면, 항미원조운동은 신생중국 이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도 역할을 하였다. 우선 시사선전(時事宣傳)운동은 북한 측의 입장에서 보면, 선전을 통해 인민군으로의 지원을 높여 많은 수의 지원군이 북한으로 출병하는 것이 도움이 된 운동이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항미원조 시사선전운동에서 ‘원조(援朝)’를 주제로 한 운동은 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사선전의 각각 방법과 그 효과를 통해서 시사선전운동이 중국의 국가 재건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국공산당은 참전을 결정한 후 1950년 10월 26일 각 중앙국, 분국, 군구, 성시 당위원회에 「關於在全國進行時事宣傳的指示」(전국 시사선전 진행에 관한 지시, 이하 『지시』)를 발표하였다.

미군이 조선 침략을 확대하고 직접적으로 대만을 침략해, 우리의 안전을 심하게 위협하고 있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미국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 각지에서 시사선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²³⁾

고 언급하면서 6항의 지시를 작성하였다. 첫 단락부터 미국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주를 이루는 만큼 당시 항미원조운동은

23) 1. 선전의 기본내용 2가지, 2. 조선의 형세와 중국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한 마땅한 설명, 3. 미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한 마땅한 설명, 4. 각 기관, 단체, 학교, 공장과 군대 내부의 선전방식은 토론을 위주로 한다. 5. 모든 선전에 있어서는 국가 기밀로 지켜야하고, 스파이를 조심해야한다. 6. 본 건은 응당 간부와 선전공작원에서 빠르게 세부사항을 전달하고 각지 군중토론중의 주요 상황보고를 보고하길 희망한다. 『中共中央關於在全國進行時事宣傳的指示』, 1950년 10월 26일, 中央檔案館提供.

친미(親美), 공미(恐美)²⁴)를 타파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 미국을 '종이호랑이'라고 칭하는 등, 대중에게 미세하게나마 남아있는 친미(親美)에 대한 사상을 소멸하고자 하였다. 상해시는 중공중앙의 지시에 맞춰 「關於開展時事宣傳的指示」(시사선전 전개에 관한 지시)를 보내고 전시에 곧 깊이 전면적으로 시사선전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각 당위원회의 중심임무를 알렸다. 또한 1950년 12월 5일 전시(全市) 각계 인민은 제 1차 항미원조대표회의(抗美援朝代表會議)를 개시하고 각 지역 운동현황에 대해 보고했는데, 상해에 대해서는 상해항미원조분회주석(上海抗美援朝分會主席) 유장성(刘长胜)이 보고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항미원조운동에 대한 시민의 동원을 확대하고, 시민에게 호소하였으며, 상해 내에서 항미원조운동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하여 모색하였다.²⁵⁾

앞서 언급한 듯이 항미원조운동, 특히 시사선전운동에서는 '원조(援朝)'보다는 '항미(抗美援朝)'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었다. 상해시위원회가 항미(抗美援朝)에 대해 강조한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상해는 프랑스와 각국의 공공조계지로 서방 국제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만큼 미국에 대하여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상해 지식인들 사이에서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모습은 본받아야 할 민주주의 국가의 상징이었다. 게다가 일부 사람은 미국에 반기를 드는 항미원조운동에 대하여 “중국의 착오”라고 표현하는 모습도 있었다.²⁶⁾ 1950년 당시 상해 발간 신문이었던 『文汇报』(문화보)²⁷⁾의 기사에서 미국에 대해 좋은 인상으로 표현하는 기사들이 다수 등장하기도 한다.²⁸⁾ 항미원조운동을 진행해야하고, 사회주의를 공고히 해야 하는

24) 미국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상태나 분위기.

25) 毕晓敏, “上海抗美援朝运动时期的时事宣传”, 『海青年管理干部学完学推』(2013):1쪽.

26) 毕晓敏, 위 논문, 2쪽.

27) 『文汇报』는 1950년대 상해지역에서 발간되던 신문이다. 때문에 인민일보를 참고하는 것보다 상해의 실상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중공과 시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친미(親美), 숭미(崇美)는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이하 소개하는 시사선전 운동 대부분에서 선전의 목적이 ‘원조(援朝)’에 목적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항미(抗美)를 중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해의 재중국교육공상해시위원회(在中國教育工會上海市委員會—이하 교육공회)의 1950년 12월 28일의 보고를 보면, 10월부터 진행된 교육 분야에 있어서 항미원조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교육의 주된 내용은 미국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학습하게 하여 항미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었다. 교육공회는 항미원조 초기단계의 성과로 시사학습의 강화된 점과 대중이 미국을 원수로 여기는 애국 정서가 격발(激發)한 점, 미국을 원수로 여김에 따라 해야 하는 각종 구체적 행동을 규정하여 초기 항미원조운동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서술하고 있다.²⁹⁾ 교육공회에서는 각 대학, 소학교, 청년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위운동 또한 전개했는데, 교육의 대상을 학생에 한정하지 않고 아동부터 청년, 대중을 모두 교육의 대상을 삼고 있었다. 시사선전을 진행함과 동시에 당의 지시에 따라 교육범위를 넓히는 것이 교육공회의 운동목표였다.³⁰⁾

교육계에서 시사선전이 구미(仇美)에 대한 반감고조와 애국에 대한 ‘교육’을 중점으로 이루어졌다면, 신문 등 각종 매체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항미’정신을 선전하였다. 우선 신문사에서는 서명운동을 벌여 서명자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고 ‘구미·항미원조에 대한 공동성명’을 게재하면서 선전 운동을 진행하였다. 『人民日報』의 경우 11월 7일자 신문³¹⁾에 칭화대학, 북경대학 등의 직원의 “공동성명”을 실었다. 서명인

28) “怎樣认识美國”, 『文汇报』(1950년 11월 6일)

29) 『中共上海市各區委群眾團體宣傳部關於当前時事宣傳教育工作報告』, 上海檔案館 소장자료, 31쪽.

30) 『中共上海市各區委群眾團體宣傳部關於当前時事宣傳教育工作報告』, 上海檔案館 소장자료, 32쪽-33쪽.

31) “北京鐵道學院等院校教職員工分別發表的擁護「聯合宣言」的宣言”, 『人民日報』(1950년 11월 7일)

모두의 이름을 담고 있었고, 저명인사들 모두가 참여한 성명발표와 지식인·저명인사 등의 이름이 나열된 신문지면은 대중들을 향한 심리적 선전효과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또한 『文汇报』³²⁾의 경우에는 신문 1면에 반 이상의 지면을 활용하여 서명인들의 이름을 소개했다. 이러한 공동서명을 통한 선전은 대중들에게 ‘소속감’을 이끌어내 ‘미국을 축출하겠다고 다짐하는 공동서명 무리’에 참여하고 싶게 하는 심리를 자극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교육공회의 경우에서도 나타나는데, 교육공위 보고서를 살펴보면 항미원조 시위에 참여한 대학교직원과, 소학교직원 등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참여하지 않은 대중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시사선전운동은 매체와 교육을 통한 선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이 참여하는 거리시위로 까지 이어졌다. 1950년 12월 5일, 6일 상해 각 지역의 인민들은 <항미원조 보가위국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전시의 노동자, 점원, 학생, 선생, 의료종사자와 상공업자들까지 약 500만 여명의 참가하는 집회와 시위를 거행하였다. 또한 상해시 내의 30여 개 각 구에서 항미원조 대표회의를 열고 <중국인민 세계평화보위 및 미국침략반대위원회> 각 구 지회를 설치하여 시위를 진행해 나갔다.³³⁾ 이 시위의 슬로건은 위원회의 이름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침략반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51년 2월에는 미국이 일본을 재무장한다는 정책이 발표되었고, 이에 반대하여 “미국의 일본무장 반대”의 슬로건을 추가하여 애국시위를 벌였다. 1951년에는 상해뿐만 아니라 중국 전국적으로 “5.1대시위”의 바람이 불어 약 2억 명의 군중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5월 1일 시위(국제노동절 시위)는 그 규모만큼이나 준비단계에서부터 시위위원회가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시위에 참여하는 범위는 농·공·상·학생·청년·부녀를 가리지 않았고, 시(市), 구(區),

32) “聯合宣言”, 『文汇报』(1950년 11월 06일)

33) 上海市地方志辦公室(상해시지방지판공실) - 上海抗美援朝运动(접속날짜 2017년 10월 3일), <http://www.shtong.gov.cn>.

향(鄉) 각단위에 준비회(籌備會)를 설립하여 항미원조 상해분회를 도와 시위를 진행하게 하였다. 또한 전국의 인민단위에서 소조회의를 통해 전 국민을 동원하여 중국 내의 제국주의를 소멸하고 미국과 국민당잔재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⁴⁾ 이러한 대규모 시위에서도 역시 시위 슬로건은 “반혁명 고조의 진압”이었는데, 여기에서 ‘반혁명적인 것’의 의미는 사회주의 건설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뜻이다. 즉 5.1대 시위도 사상적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이다.

당시 진행되었던 시사선전 운동 중에 ‘항미’의 성격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최고로 역량 있는 선전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규탄(紉彈)’을 통한 연설선전 방식이었다. 선전의 방식 중에서도 ‘연설’은 군중과 직접적으로 접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좋은 선전방식이다. 상해시에서는 시사선전의 교육단계가 마무리 되던 시기 각 공회로부터 교육을 받은 인민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크고 작은 비판회, 규탄회를 열어 ‘연설’을 통한 선전운동을 진행하였다. 한국전쟁시기 이러한 규탄회는 8,000여 회에 달할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주로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당한 피해를 감정을 실어 호소하는 형식으로 규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盧灣區(노만구)에서 열린 제1차 거리주민 좌담회에서는 미국의 ‘2.6’비행기 폭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참가했다. 주민 당금산(唐金山)은 자신이 겪은 ‘2.6’비행기 폭격 당시의 상황을 울부짖으며 이야기했다.

‘2.6’폭격이 있었을 때, 나는 내 옆집 사람이 미국의 폭격으로 인해 순식간에 손, 발, 전신이 사분오열(四分五裂)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 문짝에는 피가 튀었고, 배수구의 물은 온통 피바다가 되었다. 우리는 미국을 타도해야만 하고, 우리는 그들의 근육을 뽑고, 피부를 벗겨야 한다.³⁵⁾

34) 『中共上海市委郊岡工作委員會宣傳部及市郊各區委宣傳部關於慶祝國慶·情況報告和總結』, 上海檔案館 소장자료, 1951, 1쪽.

35) 毕晓敏, 위 논문, 2쪽, 재인용.

또한 제랍교구(提籃桥区)에서 열린 시민 규탄대회에서 한 노부인은 미국을 몹시 증오하며 목이 멘 채 연설하였다.

미국 병사가 여자들을 강간했으며, 나의 두 딸은 수치스러움에 자살하였다.

이러한 미국에 대한 증오심이 고조된 상황에서의 연설을 이어졌고, 연설은 기존의 시사선전 방식과 마찬가지로 “조선을 도와주자(원조)”의 내용이 아닌 “원수미국을 증오하며, 미국은 축출해야 할 대상(항미)”이라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선전방식은 “피와 눈물”의 선전 방식으로 군중이 각성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고,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확대시키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적개심은 곧 중국공산당과 중국에 대한 애국심으로 발전하였다.

4. 대중동원운동을 통해 얻은 중국의 경제적 안정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에서의 대중운동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한 방법이였다. 시사선전운동이 1950년대 초 중국에 만연했던 사상적인 혼란을 잠재우는 수단이었다면, 대중동원운동은 최악의 경제상황을 타개하는 해결책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중국의 대중동원운동을 통해 얻은 원조는 모금액을 지원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국이 부족한 국고에서 지원하기는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은 주로 현물이나 각종 생필품 등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필품과 현물의 생산은 당시 중국의 대중동원의 방식이었던 ‘할당량 달성’, ‘목표치 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군중들은 ‘항미원조 보가위국’이라는 목표아래 다른 때보다 열심히 동원되어 노동하였고, 그 결과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면서도 경제의 안정성

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후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중국이 경제성장의 결과를 이루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항미원조운동 중 ‘대중동원’ 방면에서 효시라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대만공격이후에 발기한 1950년 7월 21일 “미국의 대만·조선침략 반대운동 주간”이다. 이 운동은 주로 대만해방과 미국을 반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것은 미국의 대만공격이 곧 중국전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³⁶⁾ 하지만, 이 시기까지만 해도 중국은 대대적인 대중운동과 참전은 생각하지 않았고, 대중들에게도 대만공격에 대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는 지침만을 내린 상태였다. 실제로 1951년 중국방직 노동조합상해시위원회(中國紡織工會上海市委員會)보고³⁷⁾에서도 1950년 11월까지만 해도 노동자들은 한국전쟁에 관심이 없었다고 보고하는 내용이 있다.

상해시는 1950년 중국인민지원군의 ‘항미원조전쟁’ 참전이 결정되자, 상해시총공회(上海市總工會)를 설치하였다. 상해시총공회에서는 각 산업별, 기관별로 공회를 따로 두어 각각 항미원조운동을 진행했고, 시기별로 보고문건을 총공회에 제출하게 하였다.³⁸⁾

하지만, 미국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고 한국군이 38선을 돌파하자, 중국 내부에서는 참전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대대적인 대중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1950년 12월 28일 중국공산당은 『인민일보』를 통해 공장, 기관, 학교, 단체 미국 제국주의의 죄악(罪惡)을 호소하고 친미(親美), 숭미(崇美), 공미(恐美)의 사상을 비판하면

36) 『周恩來文選(下卷)』, 北京：人民出版社, 1954, 54쪽-58쪽.

37) 『中國紡織工會上海市委員會關於抗美援朝運動的初步總結』, 上海檔案館 소장자료, 1951, 1쪽-9쪽.

38) 당시 상해시총공회 산하의 기관들은 신문출판인쇄공회, 의무공회(항미원조조직수술의무대공작대), 방직공회, 시정공회, 재정금융공회, 화학공회, 전신공회, 식품공회, 점원공회, 민항공회 등이 있었다. 『上海工人抗美援朝運動專輯(上海工運資料)』, 上海總工會調查研究室編, 1951, 2쪽.

서 공장 노동자들이 애국주의 생산경쟁을 전개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장노동자들이 애국주의 생산경쟁을 전개하여 심양(瀋陽)의 9만 노동자들이 참가하였고, 공업부분에서 16개의 공장이 이미 목표를 초과달성했고, 대도시의 학생, 교수는 애국주의운동을 벌이고, 북경(北京), 천진(天津), 상해(上海), 무한(武漢), 남경(南京), 심양(瀋陽)의 상공업계 종사자들이 애국시위와 경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투기를 하지 않으며 물가를 안정하고 적극적인 세금납부에 대하여 맹세하고 애국시위에 참여하였다. 39)

위의 사설은 1950년 12월 28일자 『人民日报』의 일부이다. 시사선전 운동 시기의 사설이기 때문에 “구미(仇美), 비미(鄙美), 멸미(蔑美)”의 사상적 내용이 더 강조되어있지만, “물가안정”, “공장들의 생산목표치 초과달성”, “생산경쟁” 등의 일정정도의 대중동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중동원을 독려하고 있음 또한 알 수 있다.

이후 더 본격적인 생산력 증가와 기부, 모금, 절약 등의 대중동원은 1951년 6월 1일 중국인민항미원조총회가 “애국선서, 비행기와 대포헌납 및 참전군인가족우대에 관한 호소”(이하 6.1호소)를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6.1호소 이후 전국 모든 기관,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전개된 무기헌납운동은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성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바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금이 없을 경우 기일을 정해 언제까지 얼마를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여 이를 증산을 통해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그렇지만 당시의 경제상황에서 대부분의 개인과 기업은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40)

1951년 당시 상해시위원회 정책연구실(中共上海市委政策研究室)의 보고서 중 방직공장의 사례를 보면, 방직노동조합 상해시위원회 또한

39) “继续扩大与深入抗美援朝保家卫国运动”, 『人民日报』(1950년 12월 28일)

40) 김옥준, 앞 논문, 213쪽.

후자의 방식을 선택했다. 6.1호소에 응하여 총 15대의 전투기를 기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기간을 정하여 1차 생산 목표량을 정하고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기본적으로 애국증산 기부운동은 각 공장, 개인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졌고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도 해 놓았지만, 실체를 살펴보면 중공의 강제적인 감시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각자가 설정한 1차 생산 목표량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사조가 투입되어 목표량 미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보통의 경우 생산 당사자들의 불성실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조사조(調查組)는 여러 가지의 대안책을 내놓아야 했다.⁴¹⁾

또한 각 기관, 지역, 개인 사이의 경쟁심도 동원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다. <중국인민 항미원조총회>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수도지역 각계 기관과 인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딴, 항공기를 헌납했고 각 지역과 현·성·시·구의 이름을 딴 헌납열기도 이어졌다. 또한 북경(北京), 천진(天津), 무한(武漢), 심양(瀋陽)과 같은 대도시들은 30대의 전투기 헌납을 약속하는 등 도시와 도시간 그리고 개인과 개인간의 ‘경쟁’으로 인해 더욱 뜨거워졌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노동자들이 1일~3일 혹은 5일~6일분의 임금을 기부해야 했고, 상여금과 휴가비 또한 헌납되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듯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노동자 개개인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무상으로 초과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지역·공장·개인에게 부여된 ‘할당량’은 초등학교 학생의 용돈까지 헌납하게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헌납부담은 초등학교 학생부터 노인까지, 노동자에서 예술인에 이르기 까지 전 시민, 전국민에게 적용되었다.⁴²⁾

41) 『中共上海市委政策研究室關於各區委抗美援朝愛國捐獻調查材料』, 上海檔案館 소장 자료, 1쪽-9쪽.

42)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오규열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67쪽.

이렇게 반강제적인 동원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중공 중앙은 주기적으로 무기헌납운동이 엄청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대중을 독려하기도 하였다.⁴³⁾ 하지만, 이러한 격려의 숨은 뜻을 살펴보면 더 많은 생산량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아직 성과가 없는 지역에 대한 질책을 담고 있기도 한 것이었다.⁴⁴⁾ 앞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시 상해대중동원운동은 전시경제체제 구조 하에서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증산경쟁운동이었지만, 실제로는 당의 감시 아래 반강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해의 산업노동자는 경제 생산 활동을 전개하여 증산 절약 방식으로 기부 활동을 진행했고, 상해의 공·상계인사는 운영을 개선하고 판로를 넓혀 수입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대중동원을 통한, 기부·무기헌납운동은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능력을 강화시켰다. 이는 전쟁 중에 있던 북한에도 경제적 지원이 되는 것이었지만, 중국으로서도 국내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이바지한 것이었다. 당장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과 대결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였고, 실제로 중국군의 군사력도 강화되었기 때문이다.⁴⁵⁾

중국의 항미원조운동은 중국 내부의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북한에게 ‘혈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북한이 중국인민지원군 이외의 항미원조운동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1년 2월 중국의 신화일보기자와 김일성의 대화를 보면,

물음 : 지금 중국에서 광범히 전개되고있는 중국인민의 항미원조보가위국운동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43) “偉大的抗美援朝運動”, 『人民日報』(1951년 10월 1일)

44) “加強黨對愛國公約運動的領導”, 『人民日報』(1951년 8월 8일)

45) 중국의 국방력이 증대했다는 직접적인 사료는 없지만, 1951년 10월 25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국위원회 제 3차 회의에서 진운(陳雲)이 <경제 공작과 재정공작에 관한 보고>에서 “항미원조의 헌납 운동은 직접적으로 국방력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가의 재정을 지원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답 : 중국인민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광범하게 전개하고 있는 항미원조보가위국 운동은 조선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더욱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근 5억의 인구를 가진 형제적중국인민이 조선인민을 지지하여주는 한 우리는 어떠한 침략세력도 다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인민의 항미원조보가위국운동은 조선인민의 해방 투쟁에서 뿐 아니라... 조선인민은 중국인민의 항미원조보가위국운동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고 있으며...⁴⁶⁾(밑줄강조 필자)

이렇게 항미원조운동에 대한 감사표시를 하고 있었다. 또한 항미원조운동을 통해서 중국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이 파병된 것이었기 때문에 당장 전투를 치르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병력을 지원하는 이 운동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비록 중국 국내의 정치, 경제 안정과 연관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소련이 공식적인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중국에서 지원된 원조와 지원군은 북한이 전투를 치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내용은 정전협정체결 즈음에 김일성이 한 방송연설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지적하여야 할 것은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원군부대들을 조선전선에 파견하여준 중국인민의 항미원조운동입니다. 숭고한 국제주의정신과 형제적우의로 충만된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은... 조선인민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입니다.⁴⁷⁾(밑줄 강조필자)

이와 동시에 북한은 중국의 이러한 지원을 “프로레탈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원조라고 생각했으며, 중국이라는 거대한 후방은 북한 인민들에게 격려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내부 자료를 통해봤을 때, 한국전쟁에서 북한이 패배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로 판단하고 있었다.⁴⁸⁾ 물론 북한 내부 자료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

46) 김일성, “중국 인민의 항미원조보가위국운동”, 『김일성 저작집』 6, 1951, 302쪽.

47) 김일성, “중국인민의 항미 원조운동”, 『김일성 저작집』 7, 1953, 531쪽-532쪽.

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북한 자료에서는 중국의 5억 인민이 도와준 항미원조운동은 “조선전쟁을 승리로 이끈” 요인 중에 하나였다.

반면, 중국 내적으로 시사선전 운동과 동시에 항미원조 대중동원운동을 평가하자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의 안정이 최우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항미원조운동에 대한 중국 측의 종합적인 평가는 1951년 10월 25일 전국 정치협상회의 제1기 3차 회의에서 팡진(彭真, 중국인민항미원조총회 부주석)이 발표한 <일년이 되는 전국인민 항미원조보가위국 운동과 금후공작에 대한보고 보고>(报告一年来全国人民抗美援朝保家卫国运动的情况和今后的工作)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중국인민은 항미원조운동을 통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 중국에서 행한 침략활동의 영향과 경제적 침략의 잔재를 신속하게 소탕하였고.....애국공약운동은 각계각층의 인민들을 단결하게 함으로써, 국방건설·토지개혁·반혁명 진압·농공업 생산 증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⁴⁹⁾

중국공산당은 이처럼 항미원조운동을 활용하여 간접적인 경제성장을 얻었고, 국가 재건의 기반을 공고하게 하였다.

시사선전에서는 혈맹인 조선을 돕자는 슬로건 보다 공미를 타도하고 항미정신을 증가시키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당시 중국에 남아있던 친 국민당적인 사상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내부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상해에서 항미원조운동의 경제적인 결과를 보면, 1952년 5월 31일까지 마감된 전시 기부는 상해에서만 8,491억여 위안에 달했다. 이는 전투기 566대의 가격이었었고 상해시가 본래 세웠던 목표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이었으며 중

48) 「근로자-중국 인민의 항미원조운동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고상한표현」, 『史料集』 56, 177쪽.

49) 『报告一年来全国人民抗美援朝保家卫国运动的情况和今后的工作』, 在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第一届全国委员会第三次会议(1951년 10월 25일)

국전국에서 기부된 3,700대의 전투기 중 15.3%이상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또한 나아진 경제상황은 북한으로 간 지원군의 유가족의 취업, 자녀입학 등의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도 해결해주었다. 1951년 9월 말에 이르면 모두 6,710명의 유가족이 취업하게 되었고, 10,437명의 유가족 자녀가 학교입학문제를 해결하였다.⁵⁰⁾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롤레타리아적 국제주의에 입각한 사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북·중관계가 성립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항미원조운동의 본질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북·중관계의 성립보다는 중국의 대내적인 이해관계가 더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상적인 면에서는 ‘원조’보다는 ‘항미’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났으며 대중동원운동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를 안정시켰다. 특히 친미적 성향이 강했고, 경공업 공장지대였던 상해의 경우 이러한 면이 더 크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동아시아 어느 국가든지 ‘전쟁특수’를 누리지 않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한국전쟁 때 미군의 후방기지로서 얻은 전쟁특수로 경제재건에 성공하였고, 한국의 경우에는 베트남전에 파병하여 제5개년 경제개발에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하였다. 중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특수를 누린 국가 중 하나이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경제적인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중국이 한국전쟁을 통해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알려진 바가 적다. 또한 현재 중국 여론은 “조선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는 손해뿐인 참전이

50) 张励, “抗美援朝运动中上海的群众动员”, 『历史回溯』, 2006, 35쪽.

었다는 여론이 만연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평가 이전에 국공 내전이 끝난 1950년 신생중화인민공화국에 산적해있던 정치·경제·사회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항미원조운동의 숨겨진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였던 중국이 어려움을 타계할 수 있는 수단은 '전시경제체제의 부활을 이용한 대중동원'이었다. 이미 이전부터 대중동원으로 여러 난국을 이겨낸 마오쩌둥은 항미원조라는 대외적인 슬로건 아래 국내 대중동원 운동을 시작하였다. 먼저 국민당 자유주의 진영의 사상을 제거하기 위해 시사선전운동을 통해 의식을 개조하고, 각성한 군중이 자발적으로 대중동원운동, 애국공약운동에 참여하게 독려하였다.

항미원조운동은 물론 북한에게도 도움을 준 동원운동이었지만, 하지만 실제 이해득실을 따져보면 시사선전은 중국공산당의 사상적 기반을 다지는 수단이었다. 항미원조운동이라는 명목 하에 대중에게 '철저한 사상적 교육'을 감행한 것이었다. 대중동원운동도 마찬가지이다. 대중동원을 통한 무기헌납운동과 애국공약운동은 중국군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나아가 전시경제체제하에서 애국심을 기반으로 한 절약운동, 증산운동은 이들의 경제력 또한 급상승하게 만들었다. 때문에 한국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의 파병과 항미원조운동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중국공산당이 실시한 이 두 정책은 그 지향점부터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결론도 다르게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상호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표면적으로 보통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일제시기에서부터 이어져 혈맹(血盟)관계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로 인해, 공산주의 진영을 지키기 위해 중국이 항미원조운동을 진행하고 중국인민지원군을 보냈다고 평가할 수만은 없다. 결과적으로

중국에서의 항미원조운동을 북·중관계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인민지원군 파병에서는 분명히 중국과 북한 사이의 원조관계가 분명히 드러난다. 하지만, 중국본토 내에서 행해진 항미원조운동은 북·중관계의 맥락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엄연히 항미원조의 명제하에 진행된 운동이었지만, 그 초점은 ‘원조’보다는 ‘항미’에 크게 맞춰져있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상해에서 나타난 항미원조운동의 양상을 분석하였지만, 현재의 시점에서는 상해의 항미원조운동의 모습과 중국의 여타 다른 대도시의 모습이 서로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비교연구가 가능한 다른 지역의 항미원조운동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연구에서보다 더욱 입체적인 항미원조운동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⁵¹⁾

[원고투고일: 2017. 10. 3, 심사수정일: 2017. 11. 22, 게재확정일: 2017. 11. 23.]

주제어: 상해, 항미원조운동, 항미원조전쟁, 시사선전운동, 대중동원운동, 북·중관계, 한국전쟁

51) 엄인호, 『또 하나의 한국전쟁 -만주 조선인의 ‘조국’ 과 전쟁-』, 서울:역사비평사, 2010, 290쪽.

〈참 고 문 헌〉

1. 자 료

로동신문

김일성 저작집

人民日报

文汇报

國史編纂委員會, 1982~2007, 『北韓關係史料集』, 國史編纂委員會.

『中共上海市各區委群衆團體宣傳部關於当前時事宣傳教育工作報告』, 上海檔案館.

『中共上海市委郊岡工作委員會宣傳部及市郊各區委宣傳部關於慶祝國慶情況報告和總結』, 1951年, 上海檔案館.

『中共上海市委政策研究室關於各區委抗美援朝愛國捐獻調查材料』, 上海檔案館.

『中國紡織工會上海市委員會關於抗美援朝運動的初步總結』, 上海檔案館, 1951

『上海工人抗美援朝运动专辑(上海工运资料)』, 上海總工會調查研究室編, 1951

『中共中央關於在全國進行時事宣傳的指示』, 中央檔案館, 1950.10.26

2. 단행본

염인호, 『또 하나의 한국전쟁 -만주 조선인의 '조국'과 전쟁-』, 서울:역사비평사, 2010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오규열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오규열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오규열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周恩來文選(下卷)』, 北京 : 人民出版社, 1954

3. 논 문

김옥준, “중국 '항미원조운동'의 대내적 성격과 의의”, 『중국학논총』
23(2007):201-226, [http:// uci.or.kr /G704-000855.2007..
23.017](http://uci.or.kr/G704-000855.2007..23.017)

손해룡, “1950년대 “항미원조운동” 중 나타난 한반도 인식”, 『중국현대
문학』59(2011):155-189,
<http://uci.or.kr/G704-000355.2011..59.004>

이세은, “한국전쟁 시기 中共의 지식인·학생의 대중동원 : ‘抗美援朝
運動’과 북경대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이완범, “6·25전쟁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중국에 미친 영향”, 『군사』
62(2007):177-211,
<http://uci.or.kr/G704-001528.2007..63.002>

전훈, “抗美援朝運動期 중국공산당의 한국 이미지 만들기 : 인민일보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2012)

정다운, “한국전쟁 시기 중국 동북지역의 항미원조운동과 내셔널리즘—
길림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역사전
공 석사학위논문(2015)

三木 毅, “新中国における三反、五反運動と運動下の財經工作”, 『室蘭工
業大学研究報告』(1955):173-183,
<http://iss.ndl.go.jp/books/R1000000002-I000000023014-00>

- 沈志华, "中苏援助与朝鲜战后经济重建", 『炎黄春秋』 6(2011):1-12
- 张 励, "抗美援朝运动中上海的群众动员", 『历史回溯』(2006):33-36,
10.14019/j.cnki.cn31-1856/k.2006.03.011
- 毕晓敏, "上海抗美援朝运动时期的时事宣传", 『海青年管理干部学完学推』
(2013):57-60
- 彭 媛, "简析抗美援朝战争对上海外商银行的景响", 『重庆科技学院学报』
(2012), 10.19406/j.cnki.cqkjxyxbskb.2012.13.022

4. 웹 사이트

上海市地方志办公室(상해시지방지판공실) - 上海抗美援朝运动
www.shtong.gov.cn.

<Abstract>

The Hidden Side and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Slogan for 'Counter America and Assist N. Korea' Movements in the area of Shanghai in China

- A Border Line between 'Resistance to America' and 'Assistance to N. Korea' -

Kim, Tae-Yoon

After the Second World War, China had to undergo another war of Chinese Civil war in 1945 amid the atmosphere of the Cold War. For this reason, from 1945 to 1950 when the Korean War began, China was in an ideolog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and it needed a major event to change the atmosphere of China. Amid this situation, the Korean War began. Fo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participating in an ideological war that was taking place outside the mainland China was to help a brother nation from the internationalist point of view and it was an opportunity to resolve a chaotic atmosphere in China. Eventually, the Korean War became a means by which China could resolve the turmoil by means of the "mass mobilization using the revival of the wartime economic system". Mao Zedong, who had already overcome many difficulties by means of the mobilization of the people from the past, started the domestic mass mobilization campaign under the external slogan of 'Counter America and Assist N. Korea'. First of all, in order to eliminate the ideology of the Kuomintang, the Nationalist Party of the liberalist camp, it renovated the consciousness through the current affairs propaganda campaign and encouraged the awakened crowds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mass mobilization movement and the patriotic commitment campaign.

As a result, the 'Resist America and Assist N. Korea Movement' was a mobilization movement that gave North Korea the assistance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but, in terms of actual benefits and losses, the current affairs propaganda was a means to solidify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the name of 'Resist America and Assist N. Korea Movement', China carried out a 'thorough ideological education for the general mass of a newly independent country and such initiative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evaluated to have been successful. The same was true of the mass mobilization movement. The weapons contribution movement and the patriotic commitment campaign through the mass mobilization le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military forces of the Chinese People's Army. Furthermore, the saving campaign and the production increase campaign based on patriotism under the wartime economic system also sent their economic power soaring.

A state-to-state relationship proceeds 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economic issues. On the surfac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has been known to be a blood alliance dating back to the time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However, it cannot be said that China carried out the "Resist America and Assist N. Korea Movement" and sent the Chinese Voluntary Army to North Korea simply in order to protect the communist camp for the benefit of the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China also tried to help North Korea by going out of its way to organize the 'Resist America and Assist N. Korea Movement in order to sort out its domestic turbulent conditions and to solve the economic problems. At the same time, the Koreans in the Yanbian area, who thought of North Korea as their "motherland" and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North Korean War, supporte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out of their patriotism, but these people in an ethnic minority in China did so because they wanted to be duly recognized as Chinese citizens.

Keywords: Shanghai(上海), Resist America and Assist N. Korea Movement (抗美援朝運動), Resist America and Assist N. Korea War(抗美援朝戰爭), Propaganda Movement(時事宣傳運動), public mobilization Movement(大眾動員運動), North Korea-China Relationship, The Korean WAR

